



김승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스포츠교육학 전공
체육교육과정, 학교스포츠클럽에 관심
k18075@korea.kr

학교스포츠클럽! 변화, 성장, 도약의 이야기

학교수업이 꺾인 시간. 운동장에 손을 번쩍 들어 공을 기다리며 친구들과 함께 축구공을 차는 아이들이 보인다. 체육관에는 오른손, 왼손 번갈아 공을 튀기며 드리블, 레이업슛 연습에 몰두하는 농구부 친구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체육관의 절반은 농구부 학생들이 차지했고, 반대편에 설치된 배드민턴 네트 위로는 셔틀콕이 바쁘게 넘나든다. 조금 늦게 와서인지 서둘러 한쪽 벽에 나란히 세워져 있던 탁구대를 옮기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무대 위는 한 몸처럼 동작을 맞추고 있는 십 수 명의 여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한지 오래다.

얼마 후에 있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때문인지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여느 때 보다 더 열심이다. 이마와 콧잔등에 붉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다. 이 소리, 저 소리가 섞여 어느새 체육관은 시끌벅적 왁자지껄 시장 통을 방불케 하지만 정신없기 그지없는 그 소리가 그다지 귀에 거슬리지는 않는다. 학교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대표로 출전하여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정정당당히 경쟁하며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어 보는 것.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기분 좋은 설레임, 기다려지는 즐거움 그리고 희망 섞인 기대다.

때때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그 자체가 참여의 동기, 목표가 되기도 한다. 지역-시도대회에서 우승하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출전할 수 있고, 각 시도를 대표하여 출전한 학생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의 곳곳을 누빈다.



학교스포츠클럽의 명(明)과 암(暗)

지(知) 중심의 사회 풍조, 입시위주의 학교생활, 학원, 과외 등으로 인해 운동장에서 사라졌던 아이들이 나타났다.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자취를 감췄던 운동장의 아이들을 하나 둘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불씨 역할도 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교체육을 강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 학교에 신선한 바람과 활기를 선물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교육부의 학교체육 정책 기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과거 체육특기자 발굴 및 육성에 집중되던 학교체육의 양상이 이제는 일반 학생을 포함하는 보편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초-중-고 학생선수가 참가하는 체육축제 개최’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역시 학교체육 전반에 걸친 변화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체육이 나아갈 방향이 어떠할지도 짐작할 수 있기에 기대를 갖게 한다.

반면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이 정책화, 제도화되어 학교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 부작용들도 생겨났다. 학교현장에 행정적인 부담이 더해졌고, 자발성에 기인하여 자생되던 체육 동아리 활동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물론 이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여전하다. 사실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시행되면서 입구전략 이었는지는 몰라도 초창기 등록률 제고를 위한 양적확대에 집중했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성, 자율성에 기반 하기보다 시도평가 반영의 부담을 외면하지 못하고 의도적이고 형식적 차원의 학교스포츠클럽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도 생생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정책(우수학교스포츠클럽, 교내스포츠클럽, 교육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중학교 교육과정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교체육의 근간인 체육수업이 흔들리고 주객이 바뀐 역전현상이 의외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 착근의 과정에서 학교스포츠클럽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면서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체육수업 내실화와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이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작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승리지상주의, 지나친 경쟁 야기, 대회를 위한 대회, 제2의 소년체전의 재현이라는 비판과 아주 오랜 동안 마주했다.

이러한 우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았고 급기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떠한 해법을 찾아야 할까? 올해로 11회를 맞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그렇게 짧지 않은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학교스포츠클럽의 변화, 성장, 도약을 위해 그간의 고민을 생각속에 가둬두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다.

이제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나의 생각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로 풀어 보려한다.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권위 있는 학자의 이론에 기반 하지도, 유의미한 통계나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하지도 않는다. 다만 20년 남짓 체육교사로서, 체육전문직으로서 체육 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남들과 마찬가지로의 관심과 애정으로 바라보며 느껴왔던 고민, 느낌, 기대, 바람을 담은 나의 생각을 담백하지만 진솔하게 전해 보고자 한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먼저 경쟁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경쟁의 의미를 다시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를 꺼내어 본다. 스포츠는 제도화된 놀이이지만 경쟁적인 속성이 강하다. 경쟁이 없는 스포츠는 생각하기 어렵다. 혹자는 경쟁이 없이 스스로의 만족과 즐거움에 집중하는 스포츠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경쟁이 없는 스포츠는 없다. 단지 경쟁의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스포츠에서 경쟁을 통해 만나는 상대는 내가 극복하고 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무찔러야 할 적도 아니다. 우리도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배워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경쟁을 통해 만나는 상대는 그 동안 노력으로 준비해온 나의 기량과 수준을 시험하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친구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의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기능의 습득, 여기활용에 한정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체력을 다지고, 바른 인성, 시민성, 건전한 사회적 자질을 채우고 가꾸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시험, 경기를 통해 만나게 되는 상대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온 친구다. 여태껏 만나본적 없었고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소중한 친구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만나야 한다. 함께 멋진 경기를 만들자는 무언의 약속. 상대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고 경기규칙을 준수하며 펼치는 경쟁이야말로 진짜 경쟁이다. 겉보기에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다투지만 사실은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협력이 아닐까 싶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소위 경기 후 승자가 패자에게 건네는 위로는 과시일 수 있고, 패자가 승자에게 쳐주는 박수는 진정성 없는 관행, 형식적인 의례일 수도 있다.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

경쟁에서의 승리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더해준다. 그 동안 땀 흘린 노력에 대한 값진 보상이기 때문이다. 승리자는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패배자는 아쉽다. 슬프다. 아프다. 그러나 경쟁에서의 패배가 결코 아쉽고, 슬프고, 아플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정당한 승부의 결과가 성공과



실패로 이분화 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스포츠에서의 패배를 실망, 좌절, 포기로 연결한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자신에게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스포츠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다. 이기기도 하고 저보기도 하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 쉽게 좌절하지 않는 법, 결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를 통해 쌓아온 실패의 경험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스포츠와 함께 크며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어지간한 실패와 좌절에도 자신을 추스르며 단단한 마음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역량을 기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새롭게 재구성되고 실천 되어야 한다.

소외에서 참여로

지금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수의 기능 우수자 중심, 고학년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대회 참가를 독점하는 문제 등이다. 고학년이 되어야 비로소 운동장 가운데에 설 수 있기 때문일까? 학교를 대표하여 경기, 대회에 출전이 이루어지다보니 신체조건, 체력, 기량이 우월한 고학년이 중심이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진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학년별 대회로 전환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지역교육청에서 열리는 농구대회를 1학년, 2학년, 3학년 대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는 것이다.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에 비해 실력과 수준이 떨어지겠지만 아이들에게는 또래와 함께하는 참여의 기회가 생긴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강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체육교사들은 3월이 되면 대회참가를 위한 팀을 꾸리기에 바쁘



다. 저학년 단계부터 자연스럽게 팀이 구성되고 활동하며 전통이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을 만들어 가는 문화가 자리 잡은 학교라면 불필요한 분주함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던 교사가 학교를 떠나면 클럽도 함께 사라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기능이 부족한 아이들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나 학급대항 스포츠클럽리그전 참여의 엄두도 내지 못한다.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기회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마저 소외된 아이들은 운동장 구석으로 또 스탠드로 찌그러져 들어간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외된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 소외에서 참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변형된 경기규칙, 경기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1쿼터는 남학생 노드리블 농구, 2쿼터는 여학생 노드리블 농구, 3쿼터는 남학생 5:5 농구, 4쿼터는 여학생 5:5 농구와 같은 방식이다. 남→여→남→여로 순서를 구성하면 언제나 깎두기 취급을 받던 여학생들의 기가 살고 마지막 4쿼터의 주인공이 되는 또 다른 재미와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와함께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스포츠 참여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체육 수업, 학교스포츠클럽, 교내스포츠클럽리그가 따로 따로 작동하던 종래의 방식을 하나로 이어야 한다. 학교의 환경, 여건, 특성을 반영하여 소외되었던 아이들을 참여로 이끌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변화와 성장, 도약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졌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과거 시도 대표들이 기량을 겨루는 승부를 통해 순위를 가리는 방식에서 지금은 경기 외에도 다채로운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을 병행하며 ‘대회 → 축전 →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라져 왔고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속도의 차이일 뿐 분명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이전 보다 선진화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11년을 이어오면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상징적인 측면이 강했다. 존재 자체로 시도, 지역, 학교의 대회와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를 견인해오는 역할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때다. 다시 출발선에 선다는 생각으로 반성과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 새로운 상을 그려야 한다.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그리고 학교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일련의 작업도 필요하다. 교육부 혼자 외로이 짊어지고 힘겹게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 유관기관, 시도교육청, 체육회, 종목주관단체, 대학 등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로드맵을 설정하고 중,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걷는 것과 가는 것은 다르다. 엄연한 차이가 있다.

목적 없이 무작정 걷는 것과 경유지, 도착지를 분명히 정하고 가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비전과 목표를 세워 무엇을 어떻게 실행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성공과 성취뿐만 아니라 실패의 교훈을 쌓아 도전할 수 있는 올곧고 단단한 마음을 세워주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소외에서 참여로 이끌 수 있는 고민을 통해 폭 넓은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스포츠로 활기찬 학교, 스포츠로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들의 숙제다.